

# 온종일 돌봄체계 운영 ·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관련 국회의원 권칠승의원님실 면담(기록)

작성자: 김지섭

- 일시: 2020. 6.23. 15:00 ~ 16:30
- 장소: 국회의원회관 325호 접견실
- 참석: 의원실) 정천호보좌관  
연합회) 사무총장 김지섭, 연구회장 강순옥, 프로그램개발국장 김영순



## ○ 내용

당초 권칠승의원님 면담 요청을 하였으나 부득이한 일정으로 보좌관님 면담

오후 세시에 국회의원회관 권칠승의원님실에서 우리가 준비해간 면담자료를 앞에 두고 정보좌관님께서 내주신 음료를 함께하며 먼저 우리 참석자 소개와 인사, 그리고 준비한 자료를 토대로 1시간 30여분 깊이있는 면담이 이루어 졌습니다.

### <준비자료순서>

1. 자체작성 면담자료 1부
2. 온종일 돌봄체계 운영 ·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1부
3. 청소년기본법 일부발체, 아동복지법 일부발체, 유아교육법시행령 일부발체 1부
4. 긴급돌봄관련 학교현장 운영 사례

아래 기록은 준비한 자료에 파랑색으로 추가 내용을 담아 회원선생님들께 전달이 잘 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다소 부족한 부분은 계속 채워가도록 노력할 것이며 최선을 다한 면담이었음을 전합니다.

## 1. 초등돌봄교사연합회 소개

### 가. 정부의 초등돌봄교실 추진 정책

- 참여정부의 출범당시부터 비정규직 문제를 노동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인식
- 2003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수립
- 2004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확정
- 2004~2019
  - 2004 - 초등저학년 '방과후 교실' 도입
  - 2009 - 종일돌봄교실(초등보육교실 야간까지 운영)
  - 2010 - 초등보육교실을 '초등돌봄교실'로 명칭변경 및 확대(초등에듀케어)
  - 2011~2013 -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시범운영(아침, 오후, 저녁)
  - 2014 - 초등돌봄 무상 실시 확대
  - 2015 - 초등돌봄교실 연계형 돌봄교실 확대
  - 2016 -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로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확정 전학년 확대
  - 2017 - 초등돌봄 운영방안 수립, 범정부 공동추진단 구성·운영
  - 2018 - 온종일 돌봄정책 발표
  - 초등돌봄교실 확대 및 내실화 방안 마련
- 2019년 현재 초등돌봄교실 11,980실 운영 약 24만명 학생대상

### 나. 본 단체 설립 과정 및 성과(최대간략)

- 1999년 노원구 2개교, 도봉구 2개교에 방과후 교실 시작단계에서 정보나눔
- 돌봄교사 지역연수, 자료집 개발 보급등 자기계발을 위한 자체연수 지속 실시
- **2011년 3월 사단법인 설립인가**
- 돌봄전담사 직무연수 실시(서울교대, 광주교대, 대구교대, 공주교대 외)
- 방송대 프라임칼리지 초등돌봄개론, 초등돌봄실무론 제안 개강
- **돌봄전담사 채용 자격기준 최소 보육교사 2급이상으로 제안 / 실행**
- **돌봄전담사 무기계약 지속적 제안 / 2014년 교육청 조례로 실행**
- **교육부에 초등돌봄전담인력 명칭 변경요청 / 4안으로 현재 실행**  
: 1안-초등보육교사, 2안-돌봄교육사, 3안-생활교육사, 4안-초등돌봄전담사
- **초등보육교실 단독법안 마련 제안 / 제18대국회에서 상정된바 있음**
- 학폭예방 및 학교안전, 재난안전연수등 돌봄전담사 연수 지속적 실시
- 교육부 돌봄교실 운영 길라잡이 개정회의에 매년 참석
- 본 단체 연구회에서 놀이활동지와 안전활동지 개발 교육부보다 선 개발
- 본 단체 프로그램개발국에서 초등돌봄교실 활동지 교육부보다 선 개발

-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프로그램 개발에 돌봄전담사 다수 다회 참여
- 전국 돌봄교실 학생, 학부모, 교사 기발표 및 작품전시회 개최 다수
- 초등돌봄관련 국회 정책토론회 및 간담회 개최를 통해 현안 이슈 다회표출
- 초등돌봄관련 국회 및 유관기관의 토론회 및 간담회에 참여하여 의견 개진
- 2016년, 2019년(행안부,서울시지원사업 동시선정), 2020년 3년에 걸쳐 행안부 공익활동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돌봄교실 학생 및 전담사 대상 안전연수 실시

**\* 사진 - 권칠승의원 지역구인 경기화성오산교육지원청 관내 돌봄전담사 300여명 안전역량강화 집합연수 실시 현장(2019.11.)**



연수참석자 설문지

- 초등돌봄관련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 법안 찬성의견 교육부 직접전달
- 돌봄전담사 안전교육 역량강화 연수로 초등학교내 안전교사를 두어 학생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함이 본 단체(이사장 허억)의 주력사업
- 코로나19외에 국가적 재난으로 학교 휴교령시 돌봄교실은 쉼 없이 운영함
- 전일제전담사 긴급돌봄관련 많은 업무에 실제 임하고 있음(휴가, 수당 미미)
- **국가적 위기 상황시 긴급돌봄운영이 아니라 '긴급학교운영'으로 수정 변경하여 학교가 교사를 중심으로 전격 운영되어야 함(2학기부터라도 전면 재검토 되어 시행되어야 함)**

본 단체 소개내용에 정부의 돌봄교실 추진 정책과정을 먼저 언급한 것은 연도에서 알 수 있듯이 초등학교내 돌봄교실 관련은 익히 우리연합회가 선도적인 역할로 교육부를 앞서 실질적인 많은 것을 실현해 나갔다는 점에 대해 인식하게 할 필요성과 위 의 밑줄을 그은 내용은 교실명칭에 따라 근무하는 선생님들을 부르는 호칭의 다양성이다. 수없이 변경, 수정, 변화해온 정책에 따라 교실과 호칭이 변경될지라도 우리는 곳곳하게 초등학교 보육교사라는 정체성을 지키며 묵묵히 한길을 걸어 왔음을 피력, 그러다 무상돌봄 확대정책과 함께 초등돌봄교실은 누구나가 알 수 있는 명칭이 되었기에 2017년에 본 단체명을 초등돌봄교사연합회로 변경 하였음 설명

한 줄 한줄에 추가 설명하며 그간의 활동 및 현재 진행형인 다양한 활동을 최대한 전달 하였습니다.

## 2. 온종일 돌봄체계 운영 ·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연합회 의견 전달 및 의원님실 향 후 계획 요청

- 의원님 21대 총선에서 공약으로 내건 1호 법안이 온종일돌봄관련 특별법 제정 이어서 본 단체로서는 기대하는 바가 무척 컸다. 전국의 돌봄선생님들이 의원님의 법안 발의 소식을 접하면서 권칠승의원님께 힘 실어야 한다며 한 목소리로 응원한다.
- 우리는 초등돌봄교실은 방과후에서도 빠져나와야 한다는 입장이다.
- 돌봄만의 특별법 제정을 바라고 원해왔던 바, 권칠승의원님의 특별법안 발의 대 환영이다.
- 이 법안은 의원님이 의지를 갖고 꼭 끝까지 이뤄내 주기를 바란다.
- 초등돌봄교실이 전면적으로 확대되었을 때 이미 근거법 안에서 실시 되었어야 하는데 늦은감이 있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제라도 권칠승의원님께서 발의 해주신 특별법 정말 다행이고 감사하다.
- 우리가 협력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보겠다.
- 사람사는 세상이라는 노무현대통령의 꿈! 정조대왕의 개혁을 향한 의지를 잇고 자 21대 총선에 출마하셨다는 의원님의 굵직한 의지로 힘없는 사람들이 기댈 수 있는 희망으로 기억해 주시고 중단없이 철회없이 꼭 이어나가 주실 것을 믿는다.
- 본 특별법안은 당의 공약이기도 하다. 법안이 발의되고 교총, 교육공무직노조 단체 등에서 반대의견을 많이 주고 있다. 그러나 아직 아무것도 정해진건 없다. 현재는 다양한 의견을 주는대로 받는중이다.
- 법안은 현재 발의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내용수정은 하지 못한다. 다양한 의견을 듣고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은 추가 설명을 첨부하여 교육위에 보낸다.
- 초등돌봄교사연합회처럼 찬성의견을 주는 단체는 처음이다.
- 지금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생각이다.
- 의원님의 의지도 현재로선 변함없다.

## 3. 초등돌봄교실 안정화를 위한 문제점 및 대안제시

- 돌봄교실은 이제 더 이상 확대만이 답이 아니다. 내실화를 꾀할 때이다.
- 확대만 하면서의 가장 큰 문제점은 겸용교실과 근무 짧은 시간제 운영
- 초등돌봄교실 운영을 병설유치원과 같은 형태로 교사 과중업무와 마찰 없이 병설초등돌봄교실로 운영
- 학교에서는 저출산으로 매년 학생이 줄어드는 학교 현장을 감안할 때 되레 학생 유치를 위해 돌봄교실을 법적 근거하에 특화시켜 선진국형 돌봄교실 운영으로 모두가 가고싶은 행복한 초등돌봄교실로 운영되어야 할것으로 강력 주장.

#### 4. 의원님실과의 네트워크 희망

본 단체와 의원님실 간 초등돌봄 정책, 안전, 전담사관련 등 정책토론회와 간담회 세미나 등에서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며 지속적 소통에 대해 긍정적 대화 오고감

※ 우리 선생님들!

초등돌봄관련 특별법이 만들어진다는건 참으로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번번히 무너지는 현실에서 보셨듯이 이번 기회가 아니면 어느 국회의원님이 또 법안 만들 의지를 보여 줄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이번 국회 면담에서 온종일 돌봄체계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꼭 통과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요청하고 또 요청했고, 법안에 대한 의원님실의 강한 의지와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부분 볼 수 있었습니다.

전국의 모든 돌봄전담사가 지금 이 때 무조건 하나로 단결해야 합니다. 돌봄교실도 이제 확고히 법 테두리 안에서 학교안에서 제대로 자리매김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권칠승 국회의원님실에, 또 초등돌봄교사연합회에 적극적 응원의 메시지 보내 주시고 희망을 갖고 파이팅 하십시오. 끝.